

**전일동향**

전일대비 4.10원 하락한 1,465.80원에 마감

2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4.10원 하락한 1,465.8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.90원 하락한 1,465.00원에 개장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1-2달 뒤 환율을 1,400원 수준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고, 1,465.8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5.2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0.65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65.00	1469.90	1462.00	1465.80	1467.20
엔화	927.68	941.48	922.00	940.65	-	
유로화	1726.91	1733.60	1719.53	1732.72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	-0.31	-3.85	-9.12
결제환율(수입)		-0.03	-2.94	-7.23	-14.15

\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
\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**금일 전망**

엔화 강세 전환에...1,44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6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65.80) 대비 19.55원 하락한 1,444.6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엔화 강세 전환에 제한적 하락 전망한다. 뉴욕 연은이 엔달러 흐름을 관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-일 양국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함께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. 이로 인해 달러/엔 환율이 155엔대로 급락했고, 그간 원화 약세를 심화시켰던 엔화 약세 동조화의 고리가 약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오늘 새벽 시드니 장에서도 달러/엔이 큰폭으로 하락하며 아시아장에서 엔화를 기점으로 아시아 통화들의 가치가 동반 상승압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 아울러 오늘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신호가 구체화 될 경우, 시장의 환율 상승 기대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. 이번 회의에서 국내 외 자산 비중 조정과 환헤지 전략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환율 하방 압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.

다만,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와 달러 실수요는 환율 하단을 제한할 전망이다.

<b>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</b>	<b>1437.50 ~ 1451.00 원</b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체크포인트</b>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1438.19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9.55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9098.71, -285.3p(-0.58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02.58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6451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